

완도 해양치유센터 테라피 업그레이드

새단장 마치고 오늘부터 재개장 인기 많은 스킨 테라피실 늘리고 해조류 치유 새로운 프로그램 준비

완도 해양치유센터가 새 단장을 하고 20일 다시 문을 연다.

해양치유센터는 국내 유일 해양치유 시설로 해수, 해조류, 머드 등 완도의 해양자원을 활용한 딸라소풀, 명상풀, 해조류 거품 테라피, 머드·스톤 테라피 등 16개 시설을 갖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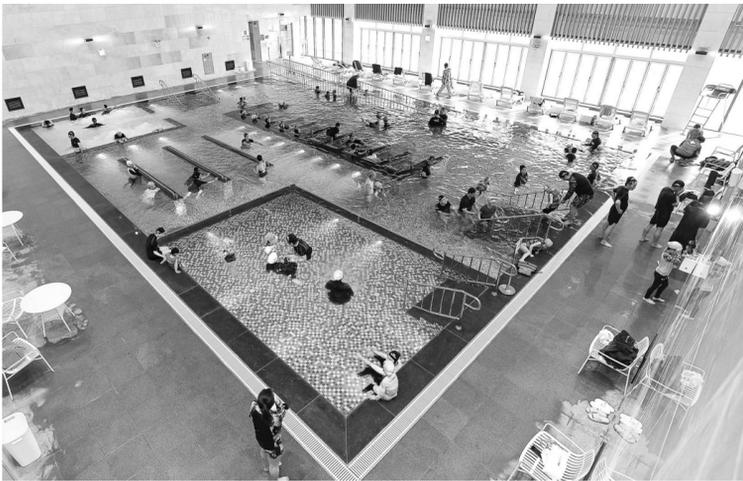
지난해 11월 개관 이후 100일 만에 1만8000여 명이 다녀가 힐링 핫플레이스로 떠올랐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센터 휴관 기간을 갖고 해조류 활용 테라피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스킨 샤워 테라피에 개별 욕조를 설치해 미역, 다시마 원물을 넣은 물에 입욕하는 '해조류 스파 테라피'는 완도 해양치유센터에서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치유 프로그램이다.

해조류 스파 테라피는 해조류의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등이 피부에 공급돼 피부를 촉촉하고 부드럽게 해주며 피로 해소와 혈액 순환에도 도움이 된다.

기존 컬러 테라피에 100% 완도산 천연 다시마가 들어가 있는 마스크팩까지 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했다.



완도 해양치유센터가 새 단장을 마치고 20일 다시 문을 연다. 완도 해양치유센터 '달라스 풀'.

방문객 만족도를 높이고자 인기 많은 스킨 테라피실을 1개 더 늘렸다.

센터를 찾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할인 이벤트도 한다.

3인 이상의 가족이 방문 시(증빙서류 제시) 전체 프로그램 이용료를 20% 할인한다.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가 열리는 4월 한 달 동안 청산도를 방문한 관광객이 여객선 승선권을 제시

하면 평일에 한 해 1층 프로그램을 30%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따뜻한 봄을 맞아 완도를 찾는 방문객들을 위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면서 "해양치유센터에서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건강을 챙기고 힐링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신안군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속도 낸다

덴마크 CIP 특수선박 지반조사 공유수면 사용 허가 등 조기착공

신안군이 해상풍력에 이어 부유식 해상풍력 조기 착공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안군은 흑산면 해상 일원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해양 지반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글로벌 기업 덴마크 CIP(Copenhagen Infrastructure Partners)가 100억 원을 투자해 특수조사 선박을 이용해 실시하고 있다.

해상풍력은 공사 시작까지 받아야 할 인허가 절차만 10개 부처, 29개에 이른다.

해당 개발사는 지난해 3월 발전사업 허가를 시작으로 발전단지 설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차례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지반조사 착수 전 어업인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정보를 전달했고,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 우려를 해소해 신뢰를 확보하는 등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기 착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발전사 한 관계자는 "신안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총 12조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적절한 절차를 거쳐 2030년 국가 온실가



글로벌 기업 덴마크 CIP가 2GW 발전사업 허가 후 설계를 위한 지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스 감축 목표(NDC) 및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중장기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GW 규모의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이 완공되면 약 116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하고 약 3만4600개의 건설 및 운영 관련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

인다. 신안군은 고정식 해상풍력 8.2GW 이외에도 부유식 해상풍력 10GW를 계획하고 있어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통해 아시아의 해상풍력 중심지로 입지를 확고히 다질 계획이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목포시 2년 연속 문광부 '우수 문화도시' 선정

목포시가 2년 연속 '우수 문화도시' 이름을 얻게 됐다.

목포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3년 문화도시 조성사업 성과평가에서 우수도시에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지역 스스로 도시 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 고유의 문화 자산을 활용해 지역민의 문화 활동 활성화와 도시 재생을 돕는다.

목포시는 예향(藝鄕)의 문화가치를 확산하며 1500만 관광객을 열 포부를 밝혀왔다.

지난 2022년 3차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돼 '새로운 개항 문화항구도시 목포'를 내걸었다.

시민거버넌스(협의체) '문화통장', 문화 활동 지원사업 '꿈지락실험실', 문화인재 양성사업 '문화갯물학교' 등 22개의 지역 문화 사업을 운영해 왔다.

이들 사업 성과는 긍정적인 평가를 이뤄 지난해 문화도시 우수도시에 선정됐다.

지난해에는 '도시를 잇다. 문화항구도시 목포'



목포문화도시센터 전경.

를 내걸고 강진, 해남, 신안, 영암 등 서남권 문화 예술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예향의 문화가치를 확산하며 서남권 문화 중심지의 기반을 다졌고, 목포시 행정복지센터에 문화라운지 9개소를 조성해 시민들의 문화 접근성을 향상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법정문화도시 3년 차를 맞아 올해는 문화거점공간을 통한 문화활동을 강화하고 목포만의 특색있는 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신현대(가운데) 현대삼호중공업 대표이사(왼쪽) 송하철(왼쪽) 국립목포대 총장, 조두연 전남대 불산학융합원 원장이 19일 '전남 조선해양산업 발전·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현대삼호중, 목포대·전남대와 기술 개발 협약

글로벌미래기술연구원 설립

현대삼호중공업과 목포대학교, 전남대학교가 원자력 선반·차세대 액화가스 운반선 등 미래기술 확보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현대삼호중공업과 목포대·전남대 불산학융합원은 19일 현대삼호중공업 본관에서 '전남 조선해양산업 발전·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맺었다고 이날 밝혔다.

협약식에는 신현대 현대삼호중공업 대표이사, 송하철 목포대 총장, 조두연 전남대 불산학융합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 기업·대학은 전문 인력 양성과 기반시설(인프라 공유), 기술 개발 등을 위해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조선해양 기술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미래기술연구원 설립 ▲고도화된 기술 연구·실증에 필요한 인프라 공동 활용 ▲기업 밀착형 교육에

필요한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 등에 협력한다.

특히 조선해양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글로벌 미래기술연구원을 목포대에 신설할 방침이다.

또 원자력 선반, 차세대 액화가스 운반선(수소·암모니아) 등 차세대 제품 개발, 조선업체 자동화·제조 혁신 지원 등을 추진한다.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조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DT) 인재 육성, 외국인 근로자 대상 LNG 화물창, 용접기술, 생산 설계 등 특화 교육을 펼친다.

송하철 목포대 총장은 "이번 협약은 서남권 중소 조선업체의 자동화와 제조 혁신에 대학이 지원하고 지역 주력 산업인 조선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립목포대의 글로벌 미래기술 확보, 연계해 지역 조선산업의 글로벌 미래기술 확보,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등 상호 간에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지은이 | 조선의
펴낸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현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교 신춘문예, 미션21 신춘문예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정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등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밑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임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